

# 전남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 3건 선정... 846억 확보

### 국제 친환경 선박기술 트렌드 변화 예견·선제적 대응 결실 목포 남항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연구개발 거점 부상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 사업에 3건이 연이어 선정돼, 총 84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 원)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 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279억 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2020년부터 역점 추진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이 해양 탄소중립과 미래형선박 핵심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목포 남항 일원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친환경선박 선도시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중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시험동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인프라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지로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전남도의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은 국제 친환경선박기술 트렌드 변화를 예견하고,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로 평가받는다.

선정 사업은 탄소중립 연료공급, 화재안전 대응, 전기추진 시스템 등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들로,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 선도, 서남권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연관 기업·연구기관 유치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탄소중립과 해양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이 친환경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인프라 완성에 힘써 전남이 미래 친환경선박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 동명동 카페에서 즐기는 감성 커피 투어

### 여행자의 ZIP, '동명 커피패스' 출시 16일부터 구매 가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6일 동명동 카페 골목을 기반으로 한 지역 커피 문화 연계 상품 '동명 커피 패스(Dongmyeong Coffee Pass)'를 출시·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명 커피패스'는 광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한 장의 티켓으로 동명동의 감성을 담은 7곳의 카페를 여행하듯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된 큐레이션 상품이다. '동커이주(동명동 온 김에 커피이주)'라는 부제로 7월 16일부터 9월까지 시즌1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6월 6일 여행자의 ZIP을 통해 협력사가 모집을 진행, ▲자제 로스팅 ▲시그니처 음료 보유 ▲동명동 정서를 담은 브랜드 등의 기준으로 최종 7곳의 카페를 선정했다.

선정된 카페 7곳은 ▲16년간 동명동을 지켜온 동명동의 헤리티지 공간 '플로리다' ▲장인 정신이 담긴 건강한 커피 '물고기커피 로스터스' ▲감각적인 공간 연출과 아름다운 디지털을 경험할 수 있는 '비비' ▲동명동을 대표하는 커피 크루가 만든 시그니처 공간 '코다 프롤로그'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클래식한 에스프레소와 커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JB로스터리' ▲한잔의 커피에 철학을 담아내는 공간, '오피 브루어스' ▲감성적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원두 편집샵 '올커피 브루어스' 등이다.

선정된 카페들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자리를 지켜온 곳부터 동명동 커피



문화를 이끌어가는 크루까지 각기 다른 개성과 진정성을 지닌 브랜드로 구성됐다.

시즌1 티켓은 16일부터 '광주아트패스'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쓰리쓰리패스 ▲투세븐패스 등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쓰리쓰리패스는 광주에 짧게 머무는 여행자를 위한 상품으로, 구매 후 첫 사용일부터 3일간 3곳의 카페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투세븐패스는 여유롭게 동명동을 즐기고 싶은 체류형 여행자나 지역 커피 애호가를 위한 상품으로 2개월 안에 7곳의 카페를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티켓은 9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시즌1이 끝나면 콘텐츠 보완 후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행자의 ZIP 인스타그램 또는 '광주아트패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철수 기자

## 서구, '생활정부 시스템 활용' 소비쿠폰TF단 가동

### 거점-연계동 체계 기반 TF구성... 거점동장 '현장지원실장' 임명

원들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 인력을 별도 고용해 행정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민선8기에 도입한 '거점동-연계동 네트워크 체계'를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 서구는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동이 동을 케어하는 수평적 소통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각 거점동장을 TF단의 '현장지원실장'으로 임명해 연계동을 총괄 관리하며 현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구청은 소비쿠폰 전용 콜센터(062-601-0500)를 운영해 전화상담 및 방문 민

원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대면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찾아가는 착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구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병행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7.21~7.25)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동별 복지 도우미 등 가용 인력도 적극 투입해 고령자, 취약 계층 등 신청 취약대상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선보인 '생활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서구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경제과가 총괄하며 주민자치과, 복지급여과, 행정지원과, 회계정보과, 기획실, 홍보실이 협업부서로 참여한다. 또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

## 광주 남구, 공공데이터 이용·개방 수요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경품 제공도... 신규 데이터 발굴 최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해당 조사와 관련한 네이버 폼

(https://naver.me/xU4Djic5) 링크를 통해 본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설문지 내용은 공공데이터 인지도 및 이용 현황, 만족도, 개선 의견, 신규 개방

분야 등 9가지 종류 16문항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설문 응답자 60명에게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8월 8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개별 문자로도 전송된다. /임채일 기자

남구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공공데이터를 신규로 발굴해 개방하고,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청 내 28개 부서의 공공데이터 134건을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도로 위험물 현황과 동물약국, 자전거보관소 등 35건의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공개했다. /임채일 기자

## 광주시,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 공개 모집

### 건축·도시·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25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창의적 건축도시 실현과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3기의 공공건축가 100명이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이번 제4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이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다. 신진 건축가와 공인된 건축 관련 수상 실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mingoo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건축경관과(062-613-41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공공건축가제도는 광주형 도시개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광전터미널 복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개시

### 북구 내 53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북구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약 1,270여만 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약 0.03%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면제로 감소하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북구는

판단했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정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상 수수료 감면 명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신설하여 무료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5

일부터 북구에 설치된 53개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감면 사항이 일괄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 고령층과 같은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고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